

【논문】

들뢰즈의 표현적 유물론*

김재희

【주제분류】 존재론, 자연철학

【주요어】 들뢰즈, 유물론, 물질, 강도, 비유기적 생명

【요약문】 이 글은 『차이와 반복』과 『천개의 고원』에 나타난 들뢰즈의 물질 개념을 중점적으로 해명하고, 이를 통해 들뢰즈의 존재론이 베르그손과 시몽동의 자연철학을 계승하는 표현적 유물론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표현적 유물론이란 한편으로는 본질적인 형상이나 선형적 범주와 같은 초월적 작인에 의거하는 정신주의적 이원론의 사유를 넘어서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장적이고 수동적인 물질 개념에 기초한 낡은 유물론의 환원주의적이고 결정론적인 사유를 넘어서면서, 물질에 내재하는 잠재적인 힘으로 존재의 생성과 변이의 문제를 설명해 나갈 수 있는 존재론을 말한다. 강도적인 에너지와 비유기적인 생명력을 지닌 들뢰즈의 독특한 물질 개념은 복잡계이론이나 자기조직화론과 같은 현대 과학의 논의를 포괄하면서도 과학적 유물론이 포착할 수 없는 자연의 능동적인 자기 표현 역량을 보여준다.

I. 서론

철학자의 가장 오래된 관심은 존재하는 이 세계의 변화와 생성소멸, 안정적으로 보이는 형상(형태)들의 발생과 변이에 대해 그 궁극적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연구재단의 전신)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KRF-2007-358-A00055)

인 이유와 원리를 해명하는 것이다. 근대 철학의 인식론적 전회와 현대 철학의 언어적 전회 이후 철학의 존재론적 관심이 부쩍 약화된 경향은 있지만, 경험적 현상의 질서와 배후 조건을 둘러싸고 실재 전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것은 여전히 과학적 탐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철학적 사유 주제다. 경험적 입증이나 반증의 과학적 태도가 실재에 관한 유일한 인식을 담보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관찰과 실험이 가능한 현실적 영역에 국한하여 인과적 설명과 예측을 도출하는 과학적 사유 방식은 그 객관적 인식의 외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간적 삶을 지탱하는 양식과 공통감에 근거한 주관적(인간중심적) 사유 습관에 몰들어 있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과연 ‘인간적인 경험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실재 전체를 사유하려는 시도는 가능한 것일까? 인식하는 주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재를 포착하는 것은 원리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칸트적 현상론이나 현상학의 입장도 물론 있다. 하지만, 인간적 주체인 코기토로서의 ‘나’를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주체의 종합하는 인식 능력이나 언어적 상징을 우선적으로 전제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적 구성물들을 포함하여 역동적인 실재 전체에 대한 비표상주의적 이해를 도출해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현대 과학의 개념들을 가로지르면서 세련된 유물론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 들뢰즈의 존재론이 그렇다. 들뢰즈의 존재론에서 현실적인 경험 대상들의 동일성을 보장하는 것은 인식 주체의 선형적 형식도 아니고 이데아적인 초월적 본질도 아니다. 그것은 소위 정신적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거나 적어도 물질에 내재하는 어떤 역동적인 작용이나 과정이다. 오늘날의 철학이 과학과 마주치는 지점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사유에서일 것이다. 들뢰즈는 이 물질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를 토대로 과학이 사유하지 못하는 전체에 대한 유물론적 통찰을 제시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 존재론 이후로 물질은 주로 질료(hyle)와 형상(morphe)의 이원론적 도식 아래 이해되어왔다. 물질은

그 자체로서는 형상적 질서를 갖지도 설명할 수도 없는 카오스적인 것이거나,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형상을 수용하는데 그치는 수동적이고 타성적인 질료에 불과했다. 칸트와 후설로 이어지는 근대 주체철학 역시 형상을 우위에 둔 질료-형상 도식의 이원적 체제를 벗어나지 못했고, 물질은 여전히 선형적인 정신의 법칙에 종속되어 존재론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 능동적인 역할을 부여받지 못했다.

정신주의적 이원론의 프레임을 벗어난 물질 개념의 가능성은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고전적 원자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비-물질(정신)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물질 이외에는 아무것도 실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물질은 원자들을 의미했다. 원자들은 크기와 모양에서의 차이, 빈 공간에서의 운동과 우연적 충돌만으로 심리생물학적인 현상들까지 모두 설명했다. 생성 변화의 복잡한 모든 현상들을 가장 단순한 물질적 원자들의 결합과 해체로 환원시켜 설명하는 이론적 단순성이라든지, 종교적 프레임의 위계적 질서 아래 존재하는 모든 것이 환원시켜보면 결국 동일한 본성을 갖는다는 함축은 유물론적 일원론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¹⁾ 르네상스 이후 기계론적 역학이 등장하자 홉스나 데카르트는 이 불가분한 실체적 입자의 운동에 결정론적인 법칙을 결합시켰다. 홉스는 모든 변화를 기계론적 법칙에 지배되는 물질적 입자들의 단순

1) 들뢰즈의 관점에서 본 원자론은 통상적인 철학사적 해석의 경우와는 다르다. 들뢰즈는 “루크레티우스와 자연주의”(질 들뢰즈,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박정태 엮고 옮김, 이학사, 2007, 55-81.)라는 글에서 에피쿠로스-루크레티우스의 원자론을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과 차별화시키면서 자신의 시선이 놓아둔 다양체의 자연철학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에피쿠로스-루크레티우스의 원자론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각각의 원자들에 내재하는 ‘클리나멘(clinamen: 직선운동을 벗어나 돌발적으로 빗나가게 하는 운동 경향)’이다. 들뢰즈는 데모크리토스가 충분히 숙고하지 못했던 원자들의 충돌 이유를 이 클리나멘에서 발견한 에피쿠로스-루크레티우스의 원자론을, 통상적인 이해방식과 달리, 원자의 실체주의적 측면보다는 체(體)들을 구성하는 운동과 속도에 주목하여 생성 철학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들뢰즈의 표현적 유물론을 이해하는데 에피쿠로스-루크레티우스의 원자론에 대한 참조는 중요한데, 이 글에서 연관관계를 깊이 다루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남겨둔다.

운동으로 환원시켰다. 인간도 마음도 기계론적 법칙에 지배되는 신체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적 복합체 이상이 아니다. 여기서 물질은 원자라기보다는 차라리 물체(corps), ‘우리의 사유에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간의 어떤 부분과 일치하는 어떤 것’이었다. 역학적 법칙에 따르는 기계론적이고 공간적인 세계 안에 ‘비-물체적인 것(incorporel)’은 존재하지 않는다.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을 분리하였기에 흠스처럼 환원적 일원론을 택하진 않았지만, 물질의 본성을 기계적 인과 법칙이 적용되는 연장적이고 공간적인 것으로 이해한 점에서는 흠스와 일치했다.

하지만 더 이상 불가분한 실체든 무한히 가분적인 실체든 ‘등질적이고 연장적인 것’이라는 물질 개념은 사실상 ‘초월적 형상의 수동적인 수용자’에 불과한 질료 개념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물질은 여전히 자발적인 생산력과 능동적인 활동성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19세기의 열역학과 에너지학이 물질을 실체적 입자가 아닌 에너지와 동일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 20세기의 현대 물리학은 물질 자체의 자기 조직화 역량을 발견함으로써 형태 발생 현상에서 초월적 작인(作因)을 제거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비평형 열역학, 자기 조직화이론, 복잡계이론 등은 외재적인 작인 없이도 물리적 시스템들이 결정적인 매개변수들의 어떤 문턱들에서 자발적으로 자기-조직화, 자기-질서화하며 어떤 구조나 형상을 산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²⁾

따라서 현대 과학의 성과에 상응하여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 현대

2) 예를 들어, 카우프만의 주장을 간단히 살펴보면, 생명체의 기원을 물질의 자기 조직화 역량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분히 복잡한 화학 분자들의 혼합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계를 조직화할 수 있다 (...) 그 계에서는 그 분자들이 형성되는 화학적 반응의 회로망을 그 분자들 자신이 집단적으로 촉매한다. 그런 집단적인 자기촉매 집합들은 그들 스스로를 유지하고 자기복제를 한다 (...) 생명이란 생물 이전 단계의 화학계에서 다양한 분자들의 복잡한 정도가 어떤 문턱치를 넘어서 증가할 때 나타나는 창발 현상이다.” 스텐어트 카우프만, 『혼돈의 가장자리』, 국형태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2, 49.

적인 존재론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물질의 존재론적 본성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개념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바로 베르그손으로부터 시몽동을 거쳐 들뢰즈에서 완성되는 ‘표현적 유물론’의 철학이다. 예컨대 칸트가 유클리드 기하학과 뉴턴 물리학으로 대표되는 근대 과학에 상응하는 형이상학 체계를 제시하였다면, 베르그손과 시몽동을 거쳐 들뢰즈에서 만개한 표현적 유물론은 자기조직화이론, 복잡계이론, 비선형 동역학, 양자역학 등으로 대표되는 현대 과학에 상응하는 물질의 형이상학을 구축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표현적 유물론(expressive materialism)이란,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생성물들의 조직화와 창발적인 새로움을 형상적 본질이나 선험적 범주와 같은 초월적 작인에 의해 근거지우는 정신주의적 이원론의 사유를 넘어서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자론적이고 기계론적이며 연장적인 물질 개념에 기초한 낡은 유물론의 환원주의적이고 결정론적인 사유를 넘어서면서, 물질에 내재하는 잠재적인 힘으로 창조적 생성을 설명해 나갈 수 있는 존재론을 말한다.³⁾

3) ‘표현적 유물론’이라는 용어 자체는 라이크만에에서 빌려왔다. “베르그손을 따라, 들뢰즈는 정신상태의 환원적 유물론을 표현적 유물론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한다. 표현적 유물론에서라면, 철학 뿐 아니라 예술도 ‘대상화된’ 뇌를 넘어서, 아직 주어지지 않은 다양하고 새로운 길들이나 시놉스들, 즉 새로운 연결접속들을 창조해 낼 수 있을 것이다.”(존 라이크만, 『들뢰즈 커넥션』, 김재인 옮김, 현실문화연구, 2005, 35.) 이 맥락에서 라이크만이 말하는 표현적 유물론이란 정신상태를 뇌의 물리적 상태로 환원시켜 이해하는 환원적 유물론을 대체하는 것이다. 베르그손의 이미지론에 근거하자면, 뇌는 표상을 산출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세계의 일부로서 동일한 물질적 이미지의 평면에 놓여있기 때문에, 세계-뇌-정신은 재현의 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이미지 차원에서 직접 변용될 수 있는 관계를 갖는다. 들뢰즈는 이런 이미지 존재론의 유물론적 세계를 자신의 영화철학에서 (영화이미지가 뇌 신경망을 직접 변용시킬 수 있다) 보여주고 있는데, 라이크만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표현적 유물론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 ‘표현적 유물론’이란 말을, 영화철학에 국한시키지 않고, 비환원적이고 비결정론적이며 비목적론적인 방식으로 생성을 사유할 수 있는 새로운 자연 철학의 패러다임으로, 특히 베르그손과 시몽동에 기초한 들뢰즈의 자연철학 또는 내재적 존재론 전체를 특징짓는 대표적인

베르그손은 지속의 형이상학 안에서 당대의 과학(특히 전자기학과 고전 열역학)을 검토하여 실체론적 입자나 공간적 연장성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비가역적 시간성을 지닌 불가분한 흐름으로 물질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기계론적 환원주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살아있는 자연의 창조적인 생성을 해명했다. 베르그손의 존재론에서는 생명이 물질의 흐름을 수축하여 생성을 이어가는 우주의 잠재성이고, 물질은 이 생명의 긴장이 풀어져가는 우주의 현실적 표면에 해당한다. 우주는 물질의 이완하는 흐름과 이를 수축하는 생명의 운동 때문에 끊임없는 생성의 장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물질의 자기 조직화 역량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는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개체 생성의 힘을 여전히 비-물질적인 생명성에서 찾는 베르그손의 관점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⁴⁾ 반면, 시몽동은 베르그손이 접하지 못했던 현대 물리학의 여러 개념들을 변환적으로 적극 차용하여 독창적인 개체화론을 전개하면서, 개체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원자론적 실체론이나 형상 중심의 질료형상도식이 갖는 불충분성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물질의 자발적인 형상화 역량과 물질에 내재하는 역동적인 관계적 작용의 실재성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⁵⁾ 물질과 생명의 상호작용 속에서 창조적으로 진화하는 베르그손적 우주, 이제는 퍼텐셜 에너지로 충전된 준안정적 시스템으로서 잇따르는 평형상태들을 가로지르는 양자적 도약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기 복잡화하는 시몽동적 피지스(physis)로 갱신된 것이다.

들뢰즈는 이렇게 베르그손이 열어놓고 시몽동이 현대화한 자연철학의 맥락에서 표현적 유물론을 완성한다. 그는 특히 베르그손으로부터는 잠재적인 실재의 생명적 역량을, 시몽동으로부터는 불일치(disparition)에 입각한 개체화의 개념적 도구들을 가져와, 자신의 ‘강도적이고 표

정의로 확장시켜 사용하고자 한다.

- 4) 김재희, “베르그손에서 잠재성과 물질의 관계”, 『시대와 철학』, 제19권, 2호, 2008년, 6월.
- 5) 김재희, “물질과 생성 : 질베르 시몽동의 개체화론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93집, 2011년, 6월.

현적인 물질론'을 구축하는데 활용한다. 이 글의 목표는 들뢰즈의 존재론이 베르그손과 시몽동의 유산과 더불어 어떻게 '표현적 유물론'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⁶⁾ 들뢰즈가 초월적 요인에 대한 참조 없이 내재적 차원에서 존재의 생성과 변이의 문제를 해결할 때 새롭게 정의되는 것이 바로 물질 개념이다. 강도적이고 에너지적인 물질, 연속적인 변이의 역량과 생명력을 지닌 물질은 더 이상 연장적이고 등질적이고 타성적인 질료로서의 물질이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은 『차이와 반복』에서의 강도적 물질론을 중심으로, 또 이후 『천개의 고원』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달라지는지 살펴보면서, 현대과학의 논의들과 상관하여 철학적 유물론이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글이 될 것이다.

II. 강도적 에너지로서의 물질

『차이와 반복』에서 들뢰즈의 존재론은 '잠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에 기초한다. '현실적인 것'이 경험 가능한 것들, 연장적이고 질적인 것들, 종별화되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것들의 존재 양상에 해당한다면, '잠재적인 것'은 이러한 현상계에 내재하지만 현실화되지 않은 본체적 실재의 양상에 해당한다. 잠재적인 것은 현실화되지 않은 실재의 양상이지만 단순히 가능한 것이 아니다.

6) 들뢰즈의 존재론을 유물론으로 정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신지영, “들뢰즈 차이의 위상학적 구조”,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 50집, 2011년, 9월, 참조). 사실 들뢰즈의 존재론은 물질적인 강도적 에너지 이외에도, 미분비와 특이성과 같은 수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위상학적인 어떤 구조의 실재성, 즉 잠재적 다양체의 이념적 성격을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념론적 측면도 다분히 지니고 있다. 들뢰즈의 존재론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료적-유물론적-탈구조적 측면과 형식적-관념론적-구조적 측면을 동시에 조망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이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여기서는 들뢰즈의 관념론적 측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물질과 생성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적 유물론이라 부를 수 있는 들뢰즈의 자연철학을 드러내는데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실재적 양상에 현실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를 도입하고 잠재적인 것을 가능한 것의 논리적 양상과 구분한 것은 들뢰즈가 베르그손으로부터 가져온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⁷⁾ 여기서 현실적인 실재와 잠재적인 실재의 관계는 단순한 ‘재현’이나 선형적 ‘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비대칭적인 창발적 ‘표현’의 관계다.⁸⁾ 잠재적인 실재는 재현의 모델인 이데아적 본질처럼 미리 결정되어 있는 어떤 실체적 원형이 아니라, 판명하면서도 애매한 어떤 이념과 같은 것으로서 그 해(解)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점진적으로 분화의 노선을 발명하면서 풀어가야 하는 어떤 문제나 물음, 또는 미분비들과 특이점들이 나타내는 어떤 관계적 구조다. 현실적인 것은 이런 문제적 이념을 매번 다르게 현실화한다. 가령 베르그손의 창조적 진화에서 잠재적인 생명의 근원적인 약동이 미결정적인 진화의 노선을 창조해 나가면서 현실적인 다양한 생명종들로 갈라져 분화해 나가듯이, 들뢰즈의 잠재적인 이념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스스로를 다양한 현실태들로 창조적으로 표현한다. 잠재적인 실재가 현실화되는 이런 존재론적 표현의 과정을 들뢰즈는 “개체-미-분-화(indi-différent/ciation) 또는 개체-극-미-분-화(indi-drama-différent/ciation)”⁹⁾라 부른다.

7) 현실/잠재, 가능/실재의 구분에 관한 들뢰즈의 논의에 대해서는 『베르그손의 잠재적 무의식』 김재희 지음, 그린비, 2010, 384-387 참조.

8) 윌리엄스의 설명에 도움을 받자면, “인과와 달리 표현은 규칙적이지 않고, 각각의 표현은 한번 발생하고 나서 사라지며, 다른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반복되거나 보충되지 않는다. 이는 어떠한 표현도, 강도의 붕인 관계와 이념들의 판명-애매함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때 현실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 간의 각각 새로운 관계는 앞선 관계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새로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관련한 기호를 가질 수 있을 뿐이지 지식을 갖는 것은 아니다.” James Williams, *Gilles Deleuze's deference and repeti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3, 200.

9) 이는 미분화(différentiation)-개체화(individuation)-극화(dramatisation)-분화(différenciation)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과정을 총칭한다. 미분화는 현실화되기 이전의 잠재적 이념 자체가 이미 미분적인(différentiel) 관계들과 특이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극화는 시공간적 역동성에 의해 배아적 주체들(개체들)이 그러한 관계들을 감당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가 전개된다는 것을, 분화는 잠재적 이념이 최종적으로 현실적 대상들의 질과 연장, 종별화와 유기적 조직화로 구현됨을 의미한다. 이후 밝

베르그손은 잠재적인 생명이 현실적인 생명종들로 바로 분화하는 과정을 다루었지만, 들뢰즈는 잠재적인 이념과 현실적인 종분화 사이에 양자의 비재현적 차이, 즉 표현적 관계를 보장하는 특유의 개체화 과정을 삽입시킨다. 이 개체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강도(intensité)’다. 강도적 차이가 “어떤 미분비들과 그에 상응하는 특이점들을 표현”¹⁰⁾하는 과정, 이것들이 시공간적인 역동성을 통해서 ‘극화’하고 ‘개체화’하는 과정이 바로 현실화 과정이다. 강도가 잠재적인 어떤 관계적 구조를 현실적인 경험적 대상으로 구체화할 때, 어떤 것은 명석하게 또 어떤 것은 혼잡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것은 늘 현실화된 것과 닮지 않는다.¹¹⁾ 이 점 역시 잠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사이의 관계가 동일성의 ‘재현’이 아닌 차이의 ‘표현’일 수 있는 이유다. 들뢰즈는 이 강도의 존재 영역을 발견함으로써 현실적인 경험 세계의 발생적 조건을 초월적인 것이 아닌 내재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게 했다.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이 강도적인 개체화의 장이 바로 물질적인 에너지의 장이라는 사실이고, 바로 이 점이 그의 내재적 존재론을 표현적 유물론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강도란 무엇인가? 가령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감각할 때, 감각되는 것은 질과 연장이다. 주관의 선형적 감성 형식을 미리 전제하지 않는다면, 이런 질과 이런 연장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과 연장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지만 정작 이들과는 본성이 전혀 다른 것, 바로 강도다. 이 강도가 우리의 경험에 주어지는 ‘감각적 잡다’ 자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들뢰즈의 존재

혀지겠지만 개체화는 이 모든 과정과 동시적인 것으로서 특히 현실화를 촉발하는 작용이다. G. Deleuze, *Différence et Répétition*, PUF, 1968, 317. (『차이와 반복』 김상환 옮김, 민음사, 2004, 525.) 이하 DR로 약칭하고, 인용문은 원문에 비추어 수정된 부분들이 있음을 밝혀둔다.

10) DR 325. (『차이와 반복』 535-6.)

11) “강도가 이러저러한 미분비와 특이점들을 명석하게 표현할 때, 그 강도를 통해서도 또한 다른 모든 비율적 관계들, 이 관계들의 모든 변이와 점들이 혼잡하게 표현된다.” DR 326. (『차이와 반복』 537.)

론에서는 강도가 모든 현상의 발생적 근거다. 모든 감각 가능한 현상들은 강도의 표현이다. “불일치(disparité), 즉 차이 또는 강도(강도의 차이)가 현상의 충분근거, 나타나는 것의 조건이다. (...) 감각될 수 있는 것의 근거, 나타나는 것의 조건, 그것은 공간과 시간이 아니라, 강도 차이 안에, 차이로서의 강도 안에 포함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는 대로의 비동등함 자체, 불일치함 바로 그것이다.”¹²⁾

강도는 왜 불일치이고 차이인가? (따라서 ‘강도 차이’라는 말은 우리의 어감과 달리 사실상 동어반복이다.) 들뢰즈는 이 강도 개념을 로스니(J.-H. Rosny)의 아이디어에서 가져온다. “에너지이론에 따르면, 모든 작용은 온도차, 전위차, 고도차 등에서 유래한다. (...) 모든 계산 가능한 에너지는 필시 E-E’ 형식의 요인들을 함축하고 있을 것이며, 이 요인들 중 E와 E’는 다시 그 자체로 e-e’ 형식의 요인들을 감추고 있다. (...) 강도는 동질적인 두 향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질적인 향들로 이루어진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계열들로 구성된다.”¹³⁾ 즉 강도는 단일한 어떤 질의 양이 아니라 그 자체로 불일치함을 담고 있는 “차이의 형식”이자 “차이 그 자체”다.¹⁴⁾ E나 E’ 어느 쪽으로 환원시키거나 동일화할 수 없는, 서로 불일치하고 비대칭적이며 균등화할 수 없는 채로 공존하는 E와 E’ 사이의 거리나 간격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강도다. 이런 강도가 우리의 감각 경험에 내재하지만 우리는 이를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질과 연장으로밖에는 느낄 수가 없다. 노발리스의 전기석이 칸트의 시공간 형식보다 감성적인 것의 조건에 더 가까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강도가 사물의 경험적 현상을 산출하는 조건이 됨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전기석은 일상온도에서 일반적인 돌멩이와 구별되지 않지만, 100도 열을 가하면 음과 양으로 전하가 분리되고 이 전하의 차이가 공명하면서 주변 먼지를 끌어당기는 초전기성을 띠게 된다. 온도 차이와 전하 차이 자체는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돌멩이를 전기

12) DR 287. (『차이와 반복』 477.)

13) DR 287. 각주. (『차이와 반복』 477, 각주.)

14) DR 287. (『차이와 반복』 476.)

석으로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인 것이다.

온도, 압력, 전압, 고도, 퍼텐셜 등에서 볼 수 있는 강도적인 것은 분명 물리적인 실재다. 그러나 이것은 길이, 넓이, 부피와 같은 외연적인 연장(extension)과는 전혀 달라서 분할될 수가 없고 설령 분할된다 하더라도 분할됨과 동시에 본성상의 변화를 동반하는 그런 것이다. 가령 물탱크의 물의 부피는 반으로 나누어도 전체 계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지만, 이 물탱크를 가열하여 표면과 바닥 사이에 온도 차이를 발생시키면, 즉 가열 전의 온도가 나뉜다면, 전도나 대류 현상이 발생하면서 상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 즉 전체 계의 상태 본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강도적인 영역은 연장적인 공간과 달라서 등질적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가분한 새로운 차이와 불일치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차라리 강도들 간의 배치(봉인관계)가 달라지는 것이라 해야 한다. E-E'의 강도를 나누면 그 속에 함축되어 있던/주름 잡혀있던(impliquer) e-e'의 강도와 ε -e'의 강도가 전면에 나타나는 것/풀어져 나오는 것(expliquer)이나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이다.

강도는 모든 경험적 현상들의 발생 조건으로서 실재하지만, 그 자체로서는 감각될 수가 없고 오로지 질과 연장으로 표현된 구성물들을 통해서만 감각될 수 있을 뿐이다. 속도의 강도, 소리의 강도, 압력이나 긴장의 강도는 그것들 자체의 감각적 실증성 보다는 그것들의 효과들의 견지에서, 경험적 연속성이 무너지는 경험의 어떤 한계에서, 그 문턱을 넘어가는 변양의 순간에서나 느껴질 수 있을 뿐이다. 현기증을 느낄 때에야 비로소 고도차를 경험할 수 있듯이 말이다. 따라서 현실적 실재의 차원에서 강도를 찾아보자면, 우리는 단지 ‘기호들’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모든 현상은 신호-기호 시스템 안에서 번쩍거린다.”¹⁵⁾ 신호(signal)란 이질적이고 불일치한 두 계열들로 구성된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 안에서 그 두 계열들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 번쩍거리는 것이 기호(signe)다.¹⁶⁾ ‘번쩍거림’이란 주어진 현상이

15) DR 286. (『차이와 반복』 476.)

16) “우리가 신호라 부르는 것은 어떤 체계인데, 이 체계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불일치한 두 등급들, 최소한 이질적인 두 계열들에 의해 구성되거나

안정적인 동일성을 가진 부동의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질적이고 불일치하는 것들 사이에서 순간적인 소통으로 준안정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함축한다. 번개가 전하들의 차이와 충돌에 의한 전자기적 현상이듯이, 모든 현상은 불일치한 것들 사이의 관계 맺음, 즉 강도를 표현하는 기호인 것이다. 여기서 신호나 기호 개념은 ‘기표/기의’ 쌍에 기초한 언어학적 기호론과는 무관하며, 차라리 시몽동의 정보 개념과 더 가깝다. 시몽동에 따르면 “신호들을 보내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 시스템이 형성될 때 오직 그 때에만 정보가 있다. 정보는 불일치한 관계 속에 있는 시스템의 두 반쪽들 사이에 있다.”¹⁷⁾ 시몽동에게는 이 정보의 발생이 내적 불일치를 안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문제 해결로서의 개체화를 촉발하는 작용이다. 양립불가능해 보이는 ‘불일치’와 ‘소통’이 동시에 공존하는 신호-기호 시스템 자체가 강도적인 물리계의 준안정적인 구조와 질적 특성을 보여준다. 번쩍거리는 기호는 다른 것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의 발산이나 마찬가지로. 강도차가 사라져 평형상태(균등화)에 이르게 되면 어떠한 정보도 흐르지 않으며 어떠한 생성 변화도 야기하지 않는다. 들뢰즈의 신호-기호는 언표차원의 상징적 기호체계 ‘이전의 또는 그 이하의’ 존재론적인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신호-기호 체계는 물적 수준이 아니라 분자적 수준에 있다.¹⁸⁾

경계를 이루고 있다. 현상은 어떤 기호, 즉 그 불일치한 것들의 소통으로 인해 그 체계 안에서 번쩍거리는 것이다.” DR 286. (『차이와 반복』 476.)

- 17) G. Simondon, *L'Individuation à la lumière des notions de forme et d'information*, Millon, 2005, 223, n.30. 데란다 역시 열역학적 시스템의 관점에서 들뢰즈의 신호-기호 체계를 정보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시몽동의 논의를 근거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들뢰즈는 정보 경로를 ‘신호’라는 말로 표현하며, 정보량을 ‘기호들’이라 표현한다.” 마누엘 데란다, 『강도의 과학과 잠재성의 철학』 이정우/김영범 옮김, 그린비, 2009, 161, 각주 75.)
- 18) 상식적인 이해와 달리, 들뢰즈의 기호는 언어적 차원이 아니라 미시물리적 차원에 속한다. “우리가 존재론적 수준을 옮겨갈 때, 즉 언어의 이항 대립적인 시스템에 의존하는 물적인 수준에서 미세한 요소들이 범람하는 것이 감지되는 분자적인 수준으로 이행할 때, 우리는 코드의 세계에서 기호의 우주로 들어가게 된다.”(이찬웅, “들뢰즈의 ‘이접적 종합’: 신의 죽음

강도는 생성과 변화를 촉발하는 것으로서 불일치하고 비동등한 것들 간의 소통 관계를 나타내는 물리적인 기호로서 현상한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했던 개체화와 강도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현상적 차원에서의 특정한 질과 연장의 창조, 종별화와 부분 기관들의 생성은 강도가 발생하면서 분포되는 개체화 과정을 거친다. “개체화는 강도의 활동이다. 이 활동을 통해 미분비들은 현실화되도록 규정되고, 게다가 강도에 의해 창조된 질과 연장 안에서 어떤 분화의 선들을 따라 현실화되도록 규정된다.”¹⁹⁾ “개체화가 일어나는 이 강도적인 장은 자신이 표현하는 이 비율적 관계들이 어떤 시공간적 역동성들(드라마로 연출되는 극화) 안에서, 그 관계들에 상응하는 어떤 종들(종적 분화) 안에서, 그리고 그 관계들의 특이점들에 상응하는 어떤 조직화된 부분들(유기체적 분화) 안에서 구현되도록 규정한다.”²⁰⁾ 사실상 강도들의 탄생, 분포, 배치의 과정이나 다름없는 들뢰즈의 개체화 개념은 시몽동의 개체화론에서 비롯한다. 『차이와 반복』에서 들뢰즈가 직접 요약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최근에 질베르 시몽동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개체화는 우선 준안정적인 상태, 즉 최소한 크기의 두 등급들(ordres)이나 이질적인 실재의 두 층위들(이것들 사이에 퍼텐셜들이 분배되어 있는) 사이에서처럼, ‘불일치(disparation)’의 존재를 상징한다. 이 전(前)-개체적인 상태는 그러나 특이성들을 결여하고 있지 않다: 주목할만하거나 특이한 지점들은 퍼텐셜들의 존재와 분배에 의해 정의된다. 이렇게 해서 이질적인 등급들 사이의 거리에 의해 결정된, 객관적인 ‘문제제기적’ 장이 나타난다. 개체화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작용으로서 솟아난다. 또는 마찬가지로, 퍼텐셜의 현실화로서, 불일치하는 것들 사이의 소통 관계로서 출현한다. 개체화의 작용은 문제를 제거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 공명이 보장하는 짝짓기(접속)의 상태로 불일치의 요소들을 통합하는데 있다. 따라서 개체는 전-개체적인 반쪽에 연결된 채로 붙어있는데, 이것은 개

이후 무엇이 오는가”, 『철학』, 제107집, 2011년, 5월, 57.)

19) DR 317. (『차이와 반복』 525.)

20) DR 323. (『차이와 반복』 533.)

체 안에 있는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체의 특이성들의 저장소다.”²¹⁾ 들뢰즈는 이렇게 시몽동의 개체화론을 한 문단으로 요약한 후, “이 모든 측면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개체화가 본질적으로 강도적이라고 믿는다. (...) 개체화, 그것은 바로 강도의 작용이고, 이 강도의 작용이 분화의 선들을 따라서 자신이 창조할 질들과 연장들 속으로 현실화될 미분적 관계들을 결정짓는다. 이것을 총체적인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개체-미/분-화(개체-드라마-미/분-화).”²²⁾라고 덧붙인다.

이미 주어져 있는 유나 중 안에서 개별화되는 개체화나, 질료와 형상 간의 외재적 결합으로 형성되는 개체화가 아니라, 전-개체적인 시스템의 에너지적인 장 안에서 불일치하고 양립불가능한 것들 사이의 공명과 소통의 관계 맺음으로 인해 개체가 생성되는 과정이야말로 개체화라는 들뢰즈의 생각은 시몽동에서 기원한다. 하지만 들뢰즈는 시몽동의 이 개체화 작용을 잠재성을 현실화하는 강도들의 활동 과정으로 옮겨놓는다. 그리고 시몽동이 퍼텐셜 에너지의 준안정적인 환경(전-개체적인 것)과 개체화하는 현실화(개체화와 개체화되는 것) 사이에 명시적인 존재론적 차이를 구분하지 않았다면, 들뢰즈는 양자 사이에 잠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의 존재론적 차이를 도입하고 잠재적인 것에 초월론적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시몽동과의 차별화를 마련한다.²³⁾ 이를 통해서 들뢰즈는 현실적 실재와 잠재적 실재 사이에 비

21) DR 317. (『차이와 반복』 524.)

22) DR 317. (『차이와 반복』 525.)

23) 불일치, 내적 공명, 개체화와 관련해서 『차이와 반복』의 존재론에 시몽동이 미친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들뢰즈 자신이 다른 텍스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시몽동의 그 책 전체(『개체와 그 물리생물학적 발생』)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 책은 비인격적이고 전-개체적인 특이성들에 대해 합리적인 최초의 이론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 책은 명시적으로, 그 특이성들에 입각해서, 살아있는 개체와 인식하는 주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그것은 초월론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가 정의하고자 하는 초월론적인 장의 5가지 특징들, 즉 *장의 퍼텐셜 에너지*, *계열들 간의 내적 공명*, *막들의 위상학적 표면*, *의미의 조직화*, *문제적인 것의 지위*, 이것들은 모두 시몽동에 의해 분석된 것들이다. 이 문단과 이 문단에 이어지는 내

재현적인 표현적 관계와 자기-차이화하는 니체적 반복(영원회귀)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니까 들뢰즈의 ‘개체’도 엄밀하게 말해서 시몽동의 ‘개체’와는 다르다. 들뢰즈의 ‘개체’는 시몽동과 달리 ‘현실적인 존재’가 아니다. 시몽동이 물리적 개체로 간주하는 결정체(結晶體)나 생물학적 유기체가 이미 질과 연장을 지니고 유기적 조직화가 이루어진 현실적 형태를 갖는다면, 들뢰즈의 개체나 개체화 작용은 최종적인 현실화 ‘이전’ 단계에 해당한다. “개체는 어떤 질도 아니고 어떤 외연도 아니다. 개체화는 어떤 질화도 아니고 어떤 부분화도 아니다. 개체화는 또 어떤 종별화도 아니고 어떤 유기적 조직화도 아니다.”²⁴⁾ 요컨대 베르그손이 생명체의 개체성만을 인정하고, 시몽동이 한 단계 더 내려가 물리적 결정체(結晶體)의 개체성까지도 인정했다면,²⁵⁾ 들뢰즈는 아예 물리-생물학적 조직체들 그 이하에서 분자적인 개체성을 발견한 것이다. 개체화가 일어나는 장은 경험적 대상들의 현상적 차원 이전의,

용은 그 책에 밀접하게 의존하며, 단지 결론들에서만 차이가 있을 것이다.”(G. Deleuze, *Logique du sens*, Minuit, 1969, 126, n.3.) 들뢰즈와 시몽동의 비교 연구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하는 아주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과 시몽동의 영향 관계에 대한 소바냐르그의 정리된 논문이 참조할만하다. “초월론적인 것은 주체의 형식도 개체의 형식도 아니며, 게다가 현실적인 것은 잠재적인 것을 닮지 않는다. 시몽동이 함축하지 않았던 이런 구분 덕분에 들뢰즈는 시몽동을 교정하면서 다시 읽는다. 즉 퍼텐셜 에너지는 초월론적인, 즉 잠재적인 차이 그 자체에 해당하며, 개체화는 주어진 경험적 형식 아래에서 그 잠재적인 면을 현실화한다고.” Anne Sauvagnargues, “Simondon et la construction de l’empirisme transcendantal” in *Cahiers Simondon*, N.3, 2011, 28.

24) DR 318. (『차이와 반복』 525.)

25) 베르그손에 따르면, “생명체는 상호 보완하는 이질적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서로 연루되어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한다. 그것은 하나의 개체다.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심지어 결정(結晶)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결정은 부분들의 이질성이나 기능의 다양성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H. Bergson, *Œuvres*, PUF, 1970, 504.) 시몽동에 따르면, “결정(結晶)에 의해 구성된 물리-화학적 개체는, 개체로서, 생성 중에 있다.”(G. Simondon *L’Individuation à la lumière des notions de forme et d’information*, 91.)

아직 유기적 조직화가 형성되지 않은, 다만 강도들에 지나지 않는 ‘이것들(heccités)’이 우글거리는 비연장적인 스파티움(연장적 공간과 차별화된 강도적 공간)이다. 결국 개체화는 ‘이것들’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차이들, 즉 강도들이 강도들을 낳으면서(봉인된 강도들이 또 다른 강도들을 개봉하면서) 강도들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분포를 통해 잠재적인 어떤 구조가 질과 연장(또는 종별화와 유기적 조직화)으로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이다. 들뢰즈는 아직 기관들이 분화되지 않은 알에서 개체화하는 강도적 장의 모델을 발견한다. “살아있는 알은 이미 개체화의 장이고, 배아 자체는 여전히 순수한 개체이다. 또 그 알 속의 배아는 개체화가 현실화에 우선하고, 다시 말해서 종별화는 물론이고 유기적 조직화에도 우선한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²⁶⁾ 종별화(종분화) 이전에 개체화가 선행한다는 것은 베르그손이 주목하지 못했던 것이고, 전개체적인 것과 개체화된 것 사이에 잠재성과 현실성의 존재론적 차이가 있다는 것은 시몽동이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들뢰즈는 잠재적인 이 개체화의 장, 이 강도들의 스파티움을 발굴해서 경험에 내재하면서도 경험적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초월론적 조건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강도는 그 물리적이고 감각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실재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강도는 본래 “연장 안에서, 그리고 질 아래에서 스스로 부정되고 소멸하는 경향”²⁷⁾이 있기 때문이다. 강도가 질과 연장으로 표현되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잠재적인 것의 실재성을 통찰했던 베르그손조차도 강도의 초월론적인 본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들뢰즈는 비판한다.²⁸⁾ 또한 들뢰즈는 매질과 상관

26) DR 322. (『차이와 반복』 532.)

27) DR 288. (『차이와 반복』 479.)

28) 베르그손은 경험적 현실적 차원에서 질과 양의 혼합물로 등장하는 강도만이 아니라, 초월론적 잠재적 차원에서 질과 양의 실제적 조건으로 존재하는 강도를 알고 있었다. 잠재적 차원에서의 기억의 수축과 이완의 정도, 즉 지속의 긴장과 정도가 현실적 차원에서의 질과 연장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들뢰즈의 연장량과 강도량의 구분이야말로 베르그손의 양적 다양체와 질적 다양체의 구분을 그대로 대체하고 있다고 보

없이 온도차나 압력차만으로 에너지의 전환이나 사물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었던 고전 열역학자들도 물리계의 최종 상태를 결국엔 차이의 감소, 균등화, 동일화의 방향으로 귀결시켰다고 그 한계를 지적한다. 이 지점에서 들뢰즈는 현상의 발생적 조건이자 존재론적 생성의 역동적인 원천인 강도를 구제하기 위해 에너지에 관한 철학적 개념화를 시도한다. 강도가 엔트로피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²⁹⁾ 고전 열역학자들은 에너지를 강도적 요인과 외연적 요인의 조합으로 정의한 후, 계량화되기 어려운 강도적 요인을 외연적 요인으로 환원시켜 측정함으로써 강도가 소멸된 물리적 평형 상태, 즉 엔트로피의 증가를 실재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들뢰즈는 엔트로피의 실제성은 오로지 닫힌 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기에, 과학에서 다루는 특수하고 경험적인 에너지, 즉 일정한 연장 안에 질화되어 있는 부분적 체계의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일반’을 강도량으로 재정의한다. “어떠한 질도 개봉되지 않고 어떠한 연장도 펼쳐지지 않는 그 깊은 지역 안에 함축된 순수한 강도 (...) 우리는 이 순수한 강도 안에 잠복해 있는 차이를 통해 에너지를 정의한다. (...) 에너지 일반이나 강도량은 모든 변신이 일어나는 극장인 스파티움이고, 차이의 모든 정도들을 그 각각이 생산될 때 봉인하고 있는 차이 그 자체다. 이런 의미에서 에너지나 강도량은 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초월론적 원리다.”³⁰⁾ 과학이 측정하는 에너지가 현실적 차원의 닫힌 계 안에 정지되어 있는 것이라면, 들뢰즈의

인다. 특히 분할하면 본성이 달라지는 강도량의 특성은 질적 다양체인 지속의 특성으로부터 온 것이다. 베르그손의 강도 분석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베르그손의 잠재적 무의식』 209-214 참조.

29) 피어슨이 잘 지적한대로, “만일 ‘강도’가 ‘질’을 뒷받침하는 초월론적 원리(감각가능한 것의 ‘존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질에 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종류의 지속은 열역학적인 ‘무덤을 향한 질주’, 그에 상응하는 외연 안에서 차이의 무화로 인한 목마름(아마도 프로이트의 죽음충동과 같은), 동시에 질들 그 자체의 획일화를 산출하게 될 그 질주일 것이다.” K. A. Pearson, *Germinal Life*, Routledge, 1999, 75. (『썩트는 생명』 이정우 옮김, 산해, 2005, 143.)

30) DR 310. (『차이와 반복』 513-514.)

‘에너지 일반’은 그러한 에너지 시스템들로 한정되기 이전의 잠재적 차원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주라는 열린 계 전체에 내재하는 에너지 일반은 균등화로 인한 정지 없이 끊임없는 형태변화의 차이화 운동을 즐길 뿐이다. 과학적 에너지를 넘어서 이 초월론적 에너지가 강도적 스파티움을 채우고 있다. 들뢰즈는 반-엔트로피적인 역량을 베르그손 처럼 물질을 가로지르는 발명적 생명력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강도적 스파티움을 채우고 있는 에너지 일반에서 찾았다. 따라서 들뢰즈의 강도적 유물론은 “물질의 초월론적 에너지학”³¹⁾이다.

물론 들뢰즈의 강도적 에너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엔트로피를 입증하는 듯이 보이는 점진적 감소(dégradation)의 원리는 생물학적 죽음이나 물리적 평준화 현상에서 부정되지 않는다. 강도 자체가 현실화 하면서 사라지는 경향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점진적 감소의 원리는 분명 지극히 단순한 체계의 창조도, 체계들의 진화도 해명하지 못한다.”³²⁾ 즉 엔트로피가 존재론적 원리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들뢰즈의 우주에서 열적 평형 상태는 사실상 불가능한 종착지이며, 죽음조차도 생명 없는 물질 상태로 돌아가는 엔트로피적 경향이 아니라, 형상들의 와해와 해체를 통한 탈분화이자 새로운 개체화에 지나지 않는다.³³⁾ 엄밀하게 말하자면, 들뢰즈가 말하는 강도적인 에너지는 경험 과학에서의 자연 법칙이 적용되는 물질계가 아니라 “이차적인 자연만을 구성하는 규칙들과 법칙들을 넘어서” 영원회귀의 초월론적 법칙에 따르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본연의 자연”에 속하는 것이다.³⁴⁾ 물질에게서 혈벤투는 반복, 즉 차이를 산출하지 못하는 기계적 반복만을 읽어내는 것은 개념의 동일성과 재현에 물든 영혼의 시선일 뿐이다. 진정한 물질적인 반복은 끊임없이 서로 다른 형상들을 산출하고 와해시키면서 매번 다른 양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근원적인 자연의

31) K. A. Pearson, *Germinal Life*, 76. (『싹트는 생명』 144.)

32) DR 328. (『차이와 반복』 541.)

33) DR 333. (『차이와 반복』 548.) 들뢰즈의 강도적 에너지가 대결하는 것은 과학적 엔트로피만이 아니라 정신분석학의 죽음충동도 포함된다.

34) DR 312. (『차이와 반복』 517.)

반복, 즉 강도적 에너지의 반복이다. 『차이와 반복』에서 물질적인 반복과 심층적인 반복은 결국 연장적이고 외연적인 물질의 반복과 강도적이고 에너지적인 물질의 반복으로 판명된다. 전자는 후자의 걸면, 유한하고 상대적인 표현들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근원적인 자연(Nature)이 물질의 표면으로 환원된다면, 또 이 물질 자체가 어떤 깊이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 자연은 결코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이 자연의 반복은 항상 실험자와 과학자의 선한 의지에 내맡겨진 가설적 반복으로 그칠 것이다.”³⁵⁾ 물질은 자연의 표면에서 자연과학적 법칙에 종속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진정한 반복의 깊이, 즉 분화와 탈분화가 반복되는 차이의 운동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표현할 줄 안다. 물질은 단순한 연장적 표면이 아니라 강도적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는 표면인 것이다. 한마디로 들뢰즈의 물질은 과학적 가설의 자연 법칙이 적용되는 질적이고 연장적인 자연(소문자 자연)이 아니라 강도적 차이와 에너지 일반으로서 근원적인 자연(대문자 자연)의 표현 매체다. 연장적이고 기계론적이며 결정론적인 물질이 아니고, 수동적이고 타성적이며 비생산적인 질료도 아닌, 강도적 에너지로서의 물질은 경험의 영역에 내재하면서 경험적 현상계를 가능하게 하는 초월론적 원리로 작동한다. 그것은 물리적인 실재로서 경험적인 것이면서도 동시에 초월론적인 원리라는 점에서 “초-물리학(super-physique)”³⁶⁾적인 실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누엘 데란다는 20세기의 비평형 열역학에서 들뢰즈의 강도론에 상응하는 물질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들뢰즈의 강도적 유물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초월적 작인 없는 형태 발생의 내재적 원천이 물질에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다는 것이다. “본질주의적 설명이 물질과 에너지의 영역을 초월하는 요인들(예컨대 영원한 원형들)에 호소한다면, 형태발생적 설명은 물질세계에 내재적인 형태를—발생시키는(form-generating) 원천들만 사용함으로써 모든 초

35) DR 370. (『차이와 반복』 605.)

36) Fabien Tarby, *Matérialismes d'aujourd'hui*, Harmattan, 2005, 51.

월적인 요인들을 배제한다.”³⁷⁾ 예컨대 비누 방울, 소금 결정, 배아가 겪는 복잡한 접힘과 펼쳐짐의 사례들에서 에너지 가능성들의 공간(상태공간, 위상공간)에서의 위상학적 형태들(특이성들)이 온도나 압력 등 강도차의 조건에 따라 관찰가능한 기하학적 형상들로 발생됨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데란다는 들뢰즈의 표현적 유물론을 이해하는데 설득력 있는 많은 사례들을 제공한다. 하지만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한 가지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강도적 에너지’라는 것이 물질의 자기-조직화 ‘그 이상의’ 역량을 갖는다는 점이다. 가령, 데란나의 유물론적 형태발생론, 마투라나와 바렐라의 자기조직화이론, 카우프만과 고드윈의 복잡계 생물학의 논의들에 비추어 들뢰즈의 표현적 유물론을 해설할 때, 양자 간에 유기적 조직화에 대한 평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묻혀서는 안된다. 예컨대 유전자 결정론이나 자연도태와 적응 등의 수동적 진화 모델을 극복하고, 유기체와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공진화 과정에서 유기체가 자기조절적이고 자기보존적인 통합성을 갖는다는 주장, 또는 유기체들의 생명은 물리화학적인 요소들로 환원불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복잡한 자기조직적 물리계들에서 창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주장 등은 무엇보다 유기체의 통일성, 안정성, 동일성, 자기보존적 통합성을 선행적인 가치로 전제한다.³⁸⁾ 그러나 들뢰즈의 강도적 에너지는 한마디로 그런 유기적인 조직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조직화하는 물질의 수준을 넘어서 생성과 해체를 거듭하는 원초적인 자연의 활력이자 표현의 역량이다. 강도적 에너지를 지닌 물질은 물리계든 생물계든 모든 형상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존재론적 바탕이다. 그것은 유기적인 조직화 ‘그 이전에’ 있다는 점에서 ‘비유기적인’ 힘이다. 바로 이 점이 『천개의 고원』에서 부각되고 있다.

37) 마누엘 데란나, 『강도의 과학과 잠재성의 철학』 29.

38) “생물의 모든 구조변천은 생물이 자기생성을 유지한다는 조건 위에서만 가능하다 (...) 자기생성과 양립할 수 없는 상호작용들은 모두 파괴적 상호작용일 것이다.” 움베르토 마투라나 & 프란시스코 바렐라, 『삶의 나무』, 최호영 옮김, 갈무리, 2007, 117-119.

III. 비유기적 생명으로서의 물질

『차이와 반복』에서 강도적 에너지로서의 물질은 잠재적인 것을 현실화하는 개체화의 장을 이루고 있었다. 이 강도적 스파티움이 들뢰즈가 가타리와 함께 작업한 『천개의 고원』에서는 기관 없는 신체(Corps sans Organs; 이하 CsO)나 공속면(plan de consistance)으로 재정의된다. 『천개의 고원』의 존재론적 세계에는 “생명권(biosphère)도, 정신권(noosphère)도 없으며, 도처에 단 하나의 동일한 기계권(Mécanosphère)만이 있을 뿐이다.”³⁹⁾ 이 기계적 세계의 현실적 표면에는 지질학적 지층, 물리화학적 지층, 유기체적 지층, 인간문화적 지층(언어와 기술의 지층) 등 여러 지층들이 분화되어 있고, 각 지층들에는 영토화된 다양한 기계적 배치물들(agencements)이 형성되어 있다. 이 모든 지층들과 배치물들이 존재론적 위계 없이 함께 뿌리박고 있는 내재면, 살아있는 것이든 살아있지 않은 것이든 자연적인 것이든 인공적인 것이든 모든 존재자들이 하나의 동일한 존재의미로 속해있는 어떤 존재론적 평면, 이것이 바로 공속면이자 CsO다. 물질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공속면 또는 CsO, 아니면 이 스파티움을 채우고 있는 강도적 에너지이자 강도적 연속체다.

“물질(질료)이라는 것은 공속면 또는 기관 없는 신체, 즉 형상화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되지도 않았으며, 지층화되지 않았거나 탈지층화된 신체다. 그리고 이런 신체 위에서 흐르고 있던 모든 것은 분자이하와 원자이하의 입자들, 순수 강도들, 전-물리적이고 전-생명적인 자유로운 특이성들이다.”⁴⁰⁾

“CsO는 공간도 아니고 공간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생산된 강도들에 상응하는 이런저런 정도만큼 공간을 차지할 물질이다. 그것

39) G. Deleuze & F. Guattari,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II*, Minuit, 1980, 89. (『천개의 고원』 김재인 옮김, 새물결, 2001, 137.) 이하에서 MP로 약칭하고, 인용문은 원문에 비추어 수정된 부분들이 있음을 밝혀둔다.

40) MP 58. (『천개의 고원』 92.)

은 강렬하고(intense), 형상화되지 않고, 지층화되지 않은 물질, 강도적인 모체, 강도=0이다. (...) 이 물질은 에너지와 똑같은 것이다.”⁴¹⁾

기관 없는 신체란 ‘기관’이 함축하는 유기적인 조직화, 분절과 절단에 의한 지층화 등이 일어나지 않은 연속적인 물질의 존재론적 바탕을 의미한다. 여기서 ‘강도=0’는 강도의 무화나 등질성, 엔트로피와 같은 물리적 평형의 정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강도들이 분만되면서 개체화가 벌어지기 이전의 잠재적인 상태를 말한다. 시몽동의 용어로 설명하자면, 개체화가 아직 전개되지 않은 과포화용액처럼 퍼텐셜 에너지로 충전되어 있는 전-개체적인 존재의 양상에 해당할 것이다. 이 기관 없는 신체는 『차이와 반복』에서의 ‘개체화의 장’으로서의 강도적 스파티움과 개념적 연속성을 지닌다.

물질의 본성과 관련하여 『천개의 고원』에서 달라지는 것은, 동일성을 조건짓는 차이로서의 형태 발생적 역량보다는, 탈지층화-탈영토화된 흐름으로서 모든 종류의 지층들과 영토들(결정체, 유기체, 의미, 주체화 등)를 가로지르는 소통의 역량이 더 강조된다는 점이다. 존재론적 주인공은 형상들(유기적인 조직물들, 지층들, 배치물들)이 아니고 이 형상들을 가능하게 하는 운동 자체(지층화-탈지층화 또는 영토화-탈영토화-재영토화), 그리고 이 운동의 실현 매체로서의 질료, 즉 물질이다. 지층들과 배치물들이 이 물질의 연속체를 ‘내용과 표현’으로 이중분절하면서 구성되는 것들이라면, 물질 자체는 단순히 공간처럼 정지되어 있는 연장체가 아니라 그런 배치물들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내용의 특질들과 표현의 특질들을 운반하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⁴²⁾ 물질은 이제 “운동-물질의 흐름, 특이성들과 표현의

41) MP 189. (『천개의 고원』 293-4.)

42) 지층은 항상 이중분절된다. 내용에 해당하는 분절은 지층의 물질성과 관련되고, 표현에 해당하는 분절은 지층의 표현성과 관련된다. “내용이라는 것은 형상화된 물질이고, (...) 표현이라는 것은 기능적인 구조들이다.”(MP 58. 『천개의 고원』 92.) 예컨대 물리화학적 지층의 경우, 내용이 분자들의 상호작용과 분포에 해당한다면, 표현은 물질 수준에서의 통계적 앙상블과 거시물리적 평형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결정체(結晶體)라는 것은 내용적 분절과 표현적 분절이 동시에 작동하여, 미시물리적인 구

특질들의 운반자, 연속적으로 변주되고 있는 물질의 흐름”⁴³⁾, “탈지층화되고 탈영토화된 물질”⁴⁴⁾, “특이성들과 표현의 특질들을 운반하는 것으로서, 운동 중에 있는, 흐르고 있는, 변이 중에 있는 물질”⁴⁵⁾이다. 초월론적 원리로서 경험적 현상들의 발생을 책임지던 강도적인 물질성은 이제 무한한 변조와 변환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기계적(machinique) 변이의 역량이 된다.⁴⁶⁾

들뢰즈는 이런 물질성의 개념적 모델을 후설과 시몽동에서, 그리고 야금술에서 가져온다. 우선, 후설의 형체성(corporéité) 개념은 형식적 본질성과 감각적 사물성 사이에 있는 것으로서 부정확하고 비계량적이며 따라서 모호하고 방랑하는 질료적 본질, 즉 변형 과정과 분리 불가능한 물질성(matérialité)을 보여준다.⁴⁷⁾ 가령 ‘동금의 형체’는 가지성(원의 본질)과 감각성(동그란 접시) 사이에 있는 모호한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건처럼 변형과 변용을 겪는 것이다. 들뢰즈는 이로부터 ‘변이 중에 있는 물질’의 개념화 시도를 본다. 그러나 “물론 후설은 그 모호한 본질을 본질과 감각적인 것 사이, 사물과 개념 사이에 있는 일종의 중개물, 소위 칸트의 도식과 같은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⁴⁸⁾는 점에서 들뢰즈와는 길이 달라진다.

조의 거시물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지층들의 분화와 결정체의 이중분절은 시몽동의 위상(phase)이론과 개체화이론의 영향이 읽혀지는 부분이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언급에 따르면, 이중분절은 소쉬르의 <기표/기의>를 대체하는 엘름슬레브의 <내용/표현>에서 차용된 것인데, 이런 분절이 정신적이고 형식적인 작용이 아니라 물질적 실체로부터 가져오는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43) MP 506. (『천개의 고원』 781.)

44) MP 507. (『천개의 고원』 782.)

45) MP 509. (『천개의 고원』 785.)

46) ‘기계적(machinique)’이란 기술적인 메카니즘(mécanisme technique)이나 결정론과는 무관하며, 흐름을 절단하고 집속하는 운동, 욕망하는 기계(machine désirante)와 관련된다.

47) “그것들은 지성적인 형식적 본질성과도 구분되고, 감각적이고 형상적이며 지각적인 사물성과도 구분되는 형체성(corporéité)을 도출한다.” MP 507. (『천개의 고원』 783.)

48) MP 507-8. (『천개의 고원』 783.)

들뢰즈의 물질 개념은 후설보다는 시몽동에서 더 분명한 모델을 얻는다.⁴⁹⁾ 시몽동의 질료형상도식에 대한 비판은 『차이와 반복』에서부터 이미 들뢰즈 존재론의 기본적인 전제 사항이다. 시몽동과 마찬가지로 들뢰즈는 수동적인 질료에 거꾸집 역할을 하는 형상이 강요되어 개체화된 사물을 생성한다는 ‘주조’ 모델을 비판하고, ‘형상과 질료 사이에, 중간적이고 매개적인 차원의 영역, 즉 에너지적이고 분자적인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변조’ 모델을 취한다. 형상은 질료에 부과되는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형상적인 힘과 질료적인 힘이 상호 조절하는 조작적 과정 가운데 ‘형상-화’하는 것이다.⁵⁰⁾ 따라서 질료는 외부의 법칙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유의 특이성을 소유한 질료로, 또 형상은 부동불변의 실체로서 질료에 형상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현의 물질적 특질들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형상으로 재정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형상화된 또는 형상화될 수 있는 물질에는, 특이성들이나 개성(個性)들(*heccétés*)을 운반하는, 운동 중에 있는 에너지적 물질성을 덧붙여야만 한다. 이 특이성들이나 개성들은 이미 암묵적인 형상들과 같은 것들로서 기하학적이거나 기하학보다는 차라리 위상학적인 것들이고, 변형의 과정과 결합되는 것들이다. (...) 형상적 본질의 질료 안에 흐르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들에 대해서는, 강도적인 가변적 변용들이 덧붙여져야 한다.”⁵¹⁾

특이성들이나 표현의 특질들을 운반하는 에너지적 흐름으로서 물질의 무한한 변조 가능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직관적 사실은 바로 야금술이다. 들뢰즈에 따르면, 금속과 야금술은 다른 물질들에 대한 조작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물질의 본성에 대한 의식화를 가능하게 한다. 다른 물질들의 경우엔 질료의 문턱과 형상의 문턱 사이에서 조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진흙과 거꾸집처럼) 질료형상도식이 적용되

49) MP 508-9. (『천개의 고원』 783-5.)

50) “개체화 원리는 퍼텐셜 에너지의 현실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질료와 형상의 공동 교환역학적 작용(*opération allagmatique commune*)이다.” G. Simondon *L'Individuation à la lumière des notions de forme et d'information*, 48.

51) MP 508. (『천개의 고원』 784.)

기 쉽다. 그러나 “야금술 안에서는, 조각들이 끊임없이 문턱들 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에너지적 물질성이 준비된 질료를 넘어서고, 질적 변형이나 형태변화가 형상을 넘어서나.”⁵²⁾ 야금술에서 “형상들의 계속을 대체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형상이고, 질료들의 가변성을 대체하는 것은 연속적인 변이의 물질이다.”⁵³⁾ 틀뢰즈는 이런 야금술과 금속이야말로 탈지층화되고 탈영토화된 에너지 흐름의 물질성을, 즉 기계적이면서 생명적인, 또 인공적이면서 자연적인 물질의 본성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금속과 야금술이 드러내보인 것, 그것은 바로 물질에 고유한 생명, 물질 그 자체가 지닌 어떤 생기, 질료적 생명력(vitalisme matériel)이다. (...) 비유기적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관념은 (...) 야금술의 발명이자 직관이다. 금속은 사물도 아니고 유기체도 아닌, 기관 없는 신체다.”⁵⁴⁾

유기물과 무기물, 인공물과 자연물의 대립을 넘어서는 기관 없는 신체, 탈지층화되고 탈영토화된 에너지 흐름, 연속적인 변이 속에서 특이성과 표현의 특질을 실어나르는 운반자..... 바로 이런 물질이 경험적 현상 세계의 다양한 배치물들로 분절되면서 동시에 상대적 응고물들에 지나지 않는 그 배치물들을 가로질러 또 다른 배치물들로 변이하러 흘러간다. 마치 유한한 생명종들을 가로지르는 베르그손의 잠재적이고 역동적인 생명의 ‘창조적 진화’가 기계적 문(門)(*phylum machinique*)의 창조적 변이 과정으로 번역된 것과도 같다.⁵⁵⁾ 그러나

52) MP 511. (『천개의 고원』 788.)

53) MP 511. (『천개의 고원』 788.)

54) MP 512. (『천개의 고원』 789-790.)

55) “기계적 문(門)에 대한 이런 개념화가 베르그손의 창조적 진화를 새롭게 재창출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 창조적 진화에 대한 베르그손의 도식들은 분자적 물질의 탈영토화되고 횡단적인 운동들을 포착하는데 충분히 기계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모든 방향으로 무한히 접속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즐긴다는 점에서 볼 때는 ‘창조적 진화’의 양상에 ‘기계적’ 생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베르그손의 잠재적이고 역동적이며 지속적인 ‘창조적 진화’의 개념이 이제 ‘기계적’ 선들을 따라 결정적으로 모델화되고 있다.” K. A. Pearson, *Germinal Life*, 141-2. (『썩트는 생명』 272-4.)

들뢰즈는 베르그손적 ‘생명의 약동’을 물질의 강도적 에너지로 변환시켰다. 그리고 이 물질의 강도는 단지 생명체들만이 아니라, 모든 체(體)들(지층들과 배치물들)을 산출하는 발생적 원천이 되었다. 놀랍게도, 들뢰즈의 물질은 이제 ‘알’과 ‘금속’이 동일하게 지시하는 ‘비유기적인 생명’, ‘질료적 생명력’을 갖는다. 이 ‘비유기적’이면서도 ‘생명적’이라는 모순적인 사태는, 유와 중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성체(成體) 이하에서 먼저 존재해야만 하는 개체(알)의 존재방식에 대한 발견과, 가장 강하고 단단한 불변적 실체로 간주되는 금속의 현상적 모습 이전에서 먼저 수행되어야 하는 유연한 변조 과정에 대한 직관이 합치된 결과일 것이다. 그래서 통상 대립적으로 다루어져 온 물질과 생명이 ‘비유기성’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데, 과연 물질과 생명으로 분화되기 이전의 이 ‘비유기적 존재’란 무엇일까. “들뢰즈에 따르면, 생명과 물질은 다른 무언가의 지층들에 불과하다. 그러나 들뢰즈는 이 제3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하기보다 종종 생물학적이고 물리학적 용어들이 섞여있는 언어로 그것을 계속 기술할 뿐이다. 개념들의 이런 혼합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⁵⁶⁾ 과학적 시선에서 보자면 이런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철학적 유물론을 단순한 과학주의가 아닌 새로운 자연주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⁵⁷⁾

『천개의 고원』에서도 『차이와 반복』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유기적인 생명으로서의 물질은 초월론적인 자연과 만난다. 이 물질성은 물질과 생명 또는 자연과 기계가 대립하기 이전의 더 근원적인 자연, “물활론(animisme)도 아니고, 기계론(mécanisme)도 아닌, 보편적 기계주의(machinisme universel)”⁵⁸⁾의 자연성을 나타낸다. 이는 물질에 고유한

56) J. Mullarkey, “Deleuze and Materialism : One or Several Matters?” in Ian Buchanan (ed.), *A Deleuzian Century?*, Duke University Press, 1999, 453.

57) “과학적 유물론과 대조적으로, 들뢰즈의 ‘새로운 자연주의’ 기획은 자연으로부터 어떠한 잠재성이나 퍼텐셜리티, 어떠한 내재적인 힘, 어떠한 내생적인 존재도 제거함으로써 자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거부한다.” J. Mullarkey, “Deleuze and Materialism : One or Several Matters?”, 448.

58) MP 313. (『천개의 고원』 486.)

생명이 유기적인 것이 아니라 비유기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물활론적인 것과도 다르고, 물질의 운동성이 결정론적인 법칙이나 구조적 통일성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계론적인 것과도 다르다. 내재적 잠재력이 제거된 기계적 반복의 연장적이고 외연적인 물질이 아니라, 강도적 에너지와 비유기적 생명력을 지닌 이 물질적 자연은 더 이상 과학이 탐구하는 영역, 즉 과학이 도출하는 법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유기적인 조직화를 최종목적으로 삼지 않는 에너지 흐름의 비인간적인 도저함과 탈영토화-탈지층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기계주의적 유물론은 과학이 이론화하는 자기-조직화하는 물질이나 분자적 생명의 영역 자체를 넘어서 있다. “물리-화학적 지층들이 물질을 다 소진한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분자이하의, 형상화되지 않은 근원적인 물질(Matière)이 있다. 마찬가지로 유기적 지층들이 생명(Vie)을 다 소진하지 않는다. 유기체는 오히려 그 생명이 스스로를 제한하기 위하여 스스로에게 대립시킨 것이고, 생명은 비유기적일수록 더 강도가 세고 더 역량이 크다.”⁵⁹⁾ 여기서 근원적인 물질과 비유기적인 생명은, 분과 과학들의 물리-생물학적인 질료 차원을 넘어서 있는, 동일한 하나의 존재론적 바탕, 원초적인 대지를 지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탕은 우리의 경험 세계를 초월해 있지 않은 내재적인 것이고, 정신적-의식적 본질이 아니라 물질적 에너지에 속하는 것이다. 요컨대 형상적인 것보다 먼저 물질적인 것이 존재하고, 바로 이 물질적인 것의 능동적인 활동과 내생적인 특성들에 의해 다채로운 모든 형상들이 꽃피듯이 발생하고 와해한다는 점에서 이 존재론은 유물론적이고 표현적이다.⁶⁰⁾

59) MP 628. (『천개의 고원』 959.)

60) “이 내재면은 일차적으로 어떤 질료-에너지의 세계이다. 여기서 형상은 질료의 내생적 분만능력과 능동적 활동의 소산으로 정의된다. 먼저 있는 것은 형상이 아니라 질료이다. 형상은 이 질료의 깊이에서 시작되는 무한한 변이와 분화의 운동 속에 피어나는 어떤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형식적 질서가 있다면 그 질서를 조형하는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은 질료에서 온다. (...) 들뢰즈의 존재론은 질료가 어떤 고정된 형식에서 해방되어 연속적이고 무한하게 변이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일단 질료주의라 부

IV. 결론

들뢰즈의 존재론이 표현적 유물론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 이는 그의 독특한 물질 개념에 근거한다. 들뢰즈의 물질은 강도적인 에너지와 비유기적인 생명력을 지녔다. 이는 표현적 유물론이 과학적 유물론을 특징짓는 환원적 유물론이나 비환원적 유물론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환원적 유물론은 모든 과정들과 실체들을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들로 환원시켜 설명하고, 비환원적 유물론은 고차원의 심리-생물학적인 현상들을 저차원의 물리화학적 수준에서의 복잡한 자기조직화에서 창발한 환원불가능한 속성이라고 본다. 들뢰즈의 관점에서 보자면, 양자가 근본적인 실재로 놓고 있는 물질은, 원자나 분자 수준의 물질이든, 자기 조직화하는 물질이든, 여전히 ‘현실적’ 차원의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과학적 유물론은 물질에 대한 현전의 형이상학을 벗어날 수 없다. 들뢰즈의 강도적이고 표현적인 유물론은 무엇보다도 물질에 내재하는 ‘잠재성’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과학적 유물론을 넘어선다. 이것은 물리주의나 생물학주의를 넘어서는 비자연과학적인 자연주의, 즉 “사변적 관점에서 본 자연주의”⁶¹⁾라 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자연주의는 분명 자연으로부터 초월적인 정신성이나 본질주의적 요소를 제거했지만 그렇다고 자연에 내재하는 에너지나 잠재적인 표현 역량까지 박탈하진 않았다. 강도적인 에너지와 비유기적인 생명력으로 충전되어 있는 이 자연의 공속면에서는 물리생물학적인 수준이나 심리사회적인 수준 사이에 또는 자연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사이에 어떠한 종류의 존재론적인 위계나 수준들의 차이가 무의미하다.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니체, 베르그손, 시몽동 등 철학사의 많은 인물들을 경유하여 들뢰즈가 최종적으로 도출한 주장은 ‘다양한 존재자들은 하나의 일의적인(univoque) 존재의 동등한 표현들이다’라

를 수 있을 것이다.” 김상환, “들뢰즈의 CsO론” 『영미문학연구: 안과 밖』 제22호, 2007, 175-176.

61) G. Deleuze, *Logique du Sens*, 314.

는 것이다. 이 일의적인 존재가 바로 스스로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유물론적 자연이다. 다양한 존재자들이 하나의 일의적인 존재의 표현들 이라면 그 존재자들의 차이를 산출하는 것은, 바로 물질에 내재하는 강도, 특이성들, 표현의 특질들이다. 다양한 존재자들은 이 물질적 에너지의 상이한 표현들, 즉 분화되거나 분절되거나 조직화되어 잠시 자신의 시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그러나 동일한 존재론적 의미를 갖는 시물라크르들이다. 그들의 안정성은 현상적인 것이고 빠르거나 느린 에너지 흐름들의 속도와 강도적 변용에 따른 상대적인 응축에 지나지 않는다.

표현적 유물론은 우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유기체화, 의미화, 주체화⁶²⁾로부터 탈지층화-탈영토화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유기체, 의미, 주체에 대해 존재론적 특권을 부여하던 관점으로부터 비유기적인 생명과 강도적 에너지 흐름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게 한다. 창조적 진화의 베르그손적 자연과 개체발생의 시몽동적 자연을 계승하는 이 표현적 유물론의 자연주의는 유기적 신체의 인간적 경험으로 축소되어 있던 사유를 CsO의 우주적 차원에서 재-조직화할 수 있도록 각성시킨다. 결국 “우리가 소산적 자연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분리하는 것은 능산적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다.”⁶³⁾

투 고 일: 2012. 07. 16.
 심사완료일: 2012. 08. 07.
 게재확정일: 2012. 08. 08.

김재희
 성균관 대학교

62) MP 197. (『천개의 고원』 306.)

63) H. Bergson, *Œuvres*, 1024.

참고문헌

- 김상환, “들뢰즈의 CsO론” 『영미문학연구: 안과 밖』, 제22호, 2007.
- 김재희, “베르그손에서 잠재성과 물질의 관계”, 『시대와 철학』, 제19권, 2호, 2008, 6.
- 김재희, “물질과 생성: 질베르 시몽동의 개체화론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93집, 2011, 6.
- 김재희, 『베르그손의 잠재적 무의식』, 그린비, 2010.
- 신지영, “들뢰즈 차이의 위상학적 구조”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50집, 2011. 9.
- 이찬웅, “들뢰즈의 ‘이접적 종합’: 신의 죽음 이후 무엇이 오는가”, 『철학』, 제107집, 2011, 5.
- 마누엘 데란다, 『강도의 과학과 잠재성의 철학』, 이정우/김영범 공역, 그린비, 2009.
- 스튜어트 카우프만, 『혼돈의 가장자리』, 국형태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2
- 안 소바냐르그, 『들뢰즈와 예술』, 이정하 옮김, 열화당, 2009.
- 움베르토 마푸라나 & 프란시스코 바렐라, 『삶의 나무』, 최호영 옮김, 갈무리, 2007.
- 존 라이크만, 『들뢰즈 커넥션』, 김재인 옮김, 현실문화연구, 2005.
- 질 들뢰즈,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박정태 엮고 옮김, 이학사, 2007.
- Bergson, Henri, *Œuvres*, PUF, 1970.
- Cours Vincennes de Gilles Deleuze ; 27/02/1979*, <http://www.webdeleuze.com>.
- Deleuze, Gilles, *Différence et Répétition*, PUF, 1968. (『차이와 반복』 김상환 옮김, 민음사, 2004.)
- Deleuze, Gilles, *Logique du Sens*, Minuit, 1969.
- Deleuze, Gilles, & Guattari, Félix.,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II*, Minuit, 1980. (『천개의 고원』 김재인 옮김, 새물결, 2001.)
- “Deleuze and Science”, *Paragraph*, v.29, n.2, Edinburgh Univ.

- Press, 2006.
- Delanda, Manuel, “Material Expressivity”, in *Domus*, No. 893, June 2006, 122-123.
- Delanda, Manuel, “Immanence & Transcendence in the Genesis of Form”, in Ian Buchanan (ed.), *A Deleuzian Century?*, Duke University Press, 1999.
- McMullin, Ernan, (ed.), *The Concept of Matter ; in modern philosophy*,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63.
- Mullarkey, John, “Deleuze and Materialism : One or Several Matters?” in Ian Buchanan (ed.), *A Deleuzian Century?*, Duke University Press, 1999.
- Parr, Adrian, (ed.) *The Deleuze Dictionary*,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 Pearson, Keith Ansell, *Germinal Life*, Routledge, 1999. (『싹트는 생명』 이정우 옮김, 산해, 2005.)
- Sasso, Robert et Villani, Arnaud, (ed.) *Le Vocabulaire de Gilles Deleuze*, Vrin, 2003.
- Sauvagnargues, Anne, “Simondon et la construction de l’empirisme transcendantal” in *Cahiers Simondon*, N.3, 2011.
- Sellars, John, “The Point of View of the Cosmos: Deleuze, Romanticism, Stoicism”, in *PLI : COVENTRY*, Vol.8, 1999, 1-24.
- Simondon, Gilbert, *L’Individuation à la lumière des notions de forme et d’information*, Millon, 2005.
- Tarby, Fabien, *Matérialismes d’aujourd’hui*, Harmattan, 2005.
- Williams, James, *Gilles Deleuze’s defference and repeti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3.

ABSTRACT

Deleuze's Expressive Materialism

Kim, Jae-Hee

This article extracts the concept of matter from *Différence et Répétition* and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II*, and attempts to show that Deleuze's ontology can be considered to be a sort of expressive materialism which succeeds to Bergson's and Simondon's Philosophy of Nature. Expressive materialism rejects a spiritualistic dualism relied on transcendent agency such as a subject's transcendental categories and eternal essences defining forms, and is opposed to a reductive and deterministic thought of old materialism based on an extensive and passive matter. It is an ontology that explains morphogenetic movements and variations of being in terms of virtual potentialities that are not transcendent but immanent in matter itself. Deleuze's unique matter has an intensive energy and a nonorganic vitality. Corresponding to the advances of the latest sciences such as the autopoiesis theory and the complexity theory, he's original conception of matter shows a self-expressive capability of Nature that couldn't be grasped by scientific materialism.

Keywords: Deleuze, materialism, matter, intensity, nonorganic life